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컴퓨터가 인류의 삶에 가져온 미래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보다 빨리 보다 사용하기 쉽게 보다 새롭게 보다 많이 보다 다재롭게 개선돼 호환성과 통합성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이 시대의 문화풍속도를 하루가 다르게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 없이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극복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과 함께 열린 21세기는 바이오로 직관과 창의 시대이다. 정보화시대 특징지어지는 현실에서 성공은 빠른 아이디어와 감수성이다. 즉 창의성과 직관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초스피드 디지털시대에는 엉뚱한 생각 역설적인 사고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최고 히트를 누려 성공한 광고카피 "잘 자~ 내 꿈꿔~", 무수한 회의와 거둬진 고민을 통해 결정했던 "사랑해~"가 진부하다는 지적에 일순간 떠올라 급조된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래를 퍼가면 이상이나 할리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직관 또는 감(感)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주먹구구'라는 평가가 따랐다.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산업시대의 이성과 논리에 밀려 간과돼왔던 직관이나 감성이 각광받고 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속도가 승부를 결정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이성에 의한 결정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선학연구원 이은은원장은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사람들은 직관과 창의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직관은 본능이나 이상적 사고를 거치지 않는 비합리적 사유체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신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정보화시대의 핵심은 직관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선수형과 일치합니다"고 진단한다.
 불교적 사고와 통하는 디지털 사고의 실용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n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8003478번

점자 대장경 만든다

천리안 보은회, 3년계획 입력작업... "종단차원 지원 절실"

천리안 불교동호회의 보은회(회장 박희준)와 마포점자도서관이 연인주 실장이 점자불경 제작에 발 벗고 나섰다.
 보은회와 마포점자도서관은 5월부터 한글대장경(장아함경)을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한글대장경 전권을 순서대로 입력시키고, 전권 입력이 끝나면 권당 3천부 정도를 인쇄해 시각 장애인이 있는 사찰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은회는 매달 1권씩 불경을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하는 정역 작업을 실시하며, 마포점자도서관에서는 점자불서 출간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정역작업은 1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각자 사비로 같은 책을 구입하거나 보시를 받아 진행해 왔다. 점자불경 1권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를 빼고도 1만원에서 1만5천원이 든다. 그러나 종단의 후원은 물론 경전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디스크 복사를 꺼려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점자불경 제작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인식부족이란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점자불경 제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입력작업, 출판사에서 디스크를 제공해 준다면 입력 작업이 줄어 재정적·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쉽게 불경을 제작할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교관련 도서는 모두 169종. 이 가운데 불서는 11종뿐이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디지털 토크 북(Digital Talking Book)은 1종 뿐이다.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점



천진항이 부처입니다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목탁을 치고 있는 조계사의 동자승들. 19일 식발 수계식을 치른 동자승들이 출가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인 집박을 배우고 있다. 동자승들은 한달 동안 아침예불, 동안들기, 반야심경 등을 배운다. 또 각종 불교 행사에도 참여해 천진동자승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불서를 다 합해도 100여종밖에 안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불경은 조계사 원심화에서 발간한 <묘법연화경>과 마포점자도서관에서 발간한 <천지팔양신주경> <자장경> <금강경> <한글 화엄경> 등 5종뿐이어서 2천여 시각장애인 불자들은 불경 읽기가 쉽지 않다.
 이연주 실장은 "종단과 사찰 등이 일회성 행사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목말라 하는 점자불경 제작에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사랑과 정의 넘치는 땅 만드는데 협력하자"
 천주교, 초파일 경축에서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천주교에서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보내왔다.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종교간 대화위, 위원장 최기산 신부)는 18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에 '2000년 부처님 오신날을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종교간대화위는 또 "두 종교 사이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더욱 긴밀히 연대하여 이 땅을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진각종 심벌-캐릭터 선보여
 불교 최초로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종단 이미지 통일과 작업(CI)을 완료. 19일 서울하일곡동 총인원에서 CI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성초 통리원장, 일직 교육원장 등 종단의 전 승승들과 신교도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제정한 종단 심벌과 캐릭터 등을 선보였다.
 진각종이 그리고디자인(대표 박상현)에 의뢰해 1년여의 작업기간을 거쳐 완성한 심벌마크는 전체적으로 '금강'을 뜻하는 4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합쳐져 만든 사각의 다이아몬드형에 '음'자를 새기고 말교의 오방색(백·청·황·적·흑)을 조화시켜 영상화했다. 진각종은 이 심벌과 한글로고타입,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로고 JGOKJIN-GAK BUDDHIST ORDER) 등을 기본요소로 다양하게 응용해 종단의 모든 행사와 각종 양식에 적용, 종단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gsee@buddhania.com)

조불련, 한국WFB에 "북경서 만나자" 제안
 조선불교도연맹이 세계불교도우회(WFB) 한국지부에 협력을 제안했다.
 WFB 부회장 양장훈선생님으로 13일 보낸 팩스에서 박태화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제3국(베트남)에서 만나 호상

관심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불련의 제안에 대해 양 부회장은 "조계종 국제불교교류위원회와 WFB 한국지부 회원모임에서 논의한 후 접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불련에서 WFB 한국지부에 접촉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축구 타종교와 연대 가능성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7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공동대표 법장 스님 등 7인) 대표단(성관·박광서 공동대표, 정몽기 사무국장)은 17일 청와대에서 차연 문화관광비서관을 면담하고, "문화관광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국민의 종교·인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 비서관은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범불교대책위는 5월21일 오후 4시30분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방한을 위한 불교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여는 한편 이튿날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를 중심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타종교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달라이 라마 방한이 잘 성사돼 민족과 이념, 종교와 체제간의 갈등으로 점철됐던 폭력의 역사가 종식되고 인류공동체가 하나되는 데 우리 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타종교와의 연대 가능성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티베트인권독립회의 네피앙불교인공회와 중국대불교학생회 등 10개 불교모임으로 구성된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29일 오후3시 서울 명동에서 '티베트의 문화와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연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달라이라마 방한' 놓고 종단협-중국불교협 상호입장 서신교환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과 관련 유감을 표명한 중국불교협회에 19일 답신을 보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불자들과 사회각계의 뜻을 살피고 대화와 공식협의를 통하여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한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는 남북정상회담과 한-중외무장관회담이 열리는 6월 이후"라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는 14일 종단협의회에 보낸 팩스서신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일반적인 종교계 인사가 아니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정치명령자"라고 규정하고 "만일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조박초 박사가 창도한 황금유대 우호관계(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후후한 봄을 느껴 보세요!

푸른 하늘,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The Leader
POSCO
 http://www.posco.co.kr